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고백합¹, 석말숙^{2*}

¹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²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The Influence of Children’s Deficiency in Local Children’s Centers on School Life Adapt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Baek-Hap Ko¹, Mal-Sook SuK^{2*}

¹Adjunct Professor, Lifelong Education Center, Korea Nazarene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zarene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424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역아동센터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경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또래관계는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을 증진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연구 분야 확장을 제안코자 한다.

키워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결핍,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deficiency of children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on school life adaptation. The survey subjects were selected from 424 students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who were used the local children's center, and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4th of the local children's center.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peer relationships were found to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iciency and school life adaptation. Second, it was verified that self-esteem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iciency and school life adaptation. Children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experience deficiencies in various areas of society, but as can be see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y can help adapt to school life by promoting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moting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the expansion of the field of children's research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Key Words : Children using the local Children’s Center, Deficiency, Peer Relationship, Self-Esteem, Adapting to School Life

Baek Hap Ko The doctoral dissertation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Korea Nazarene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22.

*Corresponding Author : Mal-Sook Suk (swmalsuk@kornu.ac.kr)

Received January 13, 2022

Revised February 15, 2022

Accepted February 20,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저소득층 아동은 가정 경제 수준이 낮거나 부모의 맞벌이로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한 사회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아동보다 높은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소하고 아동의 정서와 심리 및 학업발달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돌봄의 부재를 막고 방과 후 돌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습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1]. 즉,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는 현실적인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며[2], 저소득 빈곤가정 아동의 정서, 심리, 학업, 사회화 등의 삶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대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취약계층이고 이들은 비취약 계층 아동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3,4].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학교생활은 세상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과 지식을 터득하고,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 생활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갈등, 경쟁, 갈등해결 방법, 협동 등을 그 안에서 깨닫고, 인생을 함께 공유할 친구를 만나 또래 관계를 맺는 장이다. 특히,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낮은 학업성취도, 낮은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과 잘못된 학교생활 경험, 학습에 대한 무능력 등으로 이어져 청소년 비행을 낳을 수 있다[5].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86%가 우선 보호 대상 아동이고, 그들의 가족 형태는 주로 빈곤·한부모·조손가정으로 결손가정의 비율이 일반가정보다 높아[6],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인지, 정서, 신체적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증가하고 학교생활 적응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헤아려 볼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좀 더 세부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빈곤과 결핍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7].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핍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발달지체와 발육부진 등과 유사한 신체발달의 문제, 학업부진, 학교중

퇴 등 인지발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사회발달 문제인 주의력 결핍, 반사회적 행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8]. 일반적으로 빈곤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게 정성을 가득 쏟을 수는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일반가정 아동보다 가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처한다. 따라서 빈곤 가정의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덜 받고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물질적 결핍수준이 높다[9]. 이와 같은 빈곤 가정 아동이 경험한 결핍은 성장발달과정에서 계속 누적되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낮은 학업성취와 서툰 사회적 관계까지 이어져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9,10].

하지만 기존 아동 관련 연구에서 결핍 변인을 소재로 연구한 결과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를 확인하는 점에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빈곤층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는 정도도 다른 아동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회적으로 약한 결핍상황과의 인과관계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개인 내적 변수와 환경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주요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설명되고[11], 아동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정도를 뜻하며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가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12].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 내적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주요한 변수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내 경제적 결핍 등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13]. 유아기에 빈곤으로 인한 결핍된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고등교육을 받고 성장한 이후에도 자아존중감이 계속 낮았고, 역경을 피하려는 성향과 약속을 깨고 자기 패배 의식이 높다고 밝힌 연구[14]도 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방면의 변인들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또래관계를 들 수 있다. 또래관계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룩해야 할 과업 중 하나이다. 아동기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여러모로 확대되는 시기로, 친구와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심리적 유대감을 쌓으면서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므로 또래관계 변인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연구에서도 또래관계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2,15,16], 또래관계 증진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적, 경제적, 사회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 또래관계는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지해주는 의미 있는 변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또한, 아동의 환경적 요인인 또래관계와 내적 심리요인인 자아존중감은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사회적 긍정요인으로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덧붙여 심리사회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연구 [2,17,18]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긍정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결핍을 활용해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변인 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미흡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단순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인식하는 개인적·환경적 변수 간의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모색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주는 영향과 이때,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결핍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실천적·정책적 지원을 제안코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은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것인가?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인가?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또래관계는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아래 연구모형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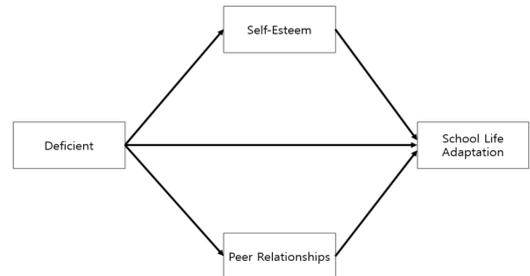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데이터는 '2기 패널'의 4차년도(2017) 자료이며 조사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다. 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횡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분야는 결핍,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적응 변수를 포함한다.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한 아동 424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학교생활적응: 종속변수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학습활동, 교칙준수,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의 적응 정도를 평가하는 질문 문항이며,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고 4점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1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모두 응답범주가 역으로 구성되어 역변환하여 평균을 구해 분석에 활용했다. 학교생활적응 변수는 구성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Cronbach's α 는 .830이다.

2.3.2 결핍: 독립변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 척도는 빈곤으로 인한 결핍을 측정하기 위해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19]에서 개발한 질문 문항 총 15개 항목을 번역한 것을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에서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고, 경제적 수준, 의식주 상태, 여가나 문화 향유 환경, 학습 환경, 또래 관계 등에서 결핍수준을 확인하는 척도이다. 결핍 척도 질문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2점 척도로 1점 '그렇다', 2점 '아니다'로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미처리하여 '0'은 '없다', '1'은 '있다'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핍을 경험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Cronbach's α '는 .692로 신뢰할 수준이다.

2.3.3 자아존중감: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20]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역하여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1]에서 수정·보완한 문항을 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나누어졌다.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 중 긍정적인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은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는 .77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3.4 또래관계: 매개변수

또래관계 척도는 Armsden & Greeberg[21]의 애착척도(IPPA)를 Hwang[22]이 변안·수정한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한 자료를 지역아동센터 패널에 수록된 것을 사용하였다. 또래관계 척도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래관계 척도의 질문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질문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말한다. Cronbach's α 는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5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가정 경제 수준, 학교성적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도움 정도' 변수를 선정하였다. 성별의 응답범주는 1=남학생, 2=여학생, 학교성적 만족도는 응답범주를 수정하여 '1점=매우 만족한다', '2점=만족하는 편이다', '3점=만족하지 않는다'로 변형하였다. 응답범주 중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2.3%(10명)로 집단의 분포가 10%보다 낮아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를 통합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로 재분류해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학교성적 만족도는 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서열척도이므로 더미 처리하여 주관적인 학교성적 만족도 1(1=매우 만족한다, 0=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는 편이다)과 학교성적 만족도 2(1=만족하는 편이다, 0=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한다)라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가정 경제 수준의 응답범주는 '7점=매우 잘 산다', '6점=조금 잘 산다', '5점=잘 산다', '4점=보통수준', '3점=사각지대', '2점=차상위계층', '1점=매우 못 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로 이루어졌다. 가정 경제 수준의 응답범주를 수정하여 '5점=잘 산다'부터 '1점=매우 못 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로 변형하였다. 가정 경제 수준 변수는 더미 처리하여 가정 경제 수준 1(1=매우 못 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 0=사각지대/차상위계층/잘 산다/보통수준), 가정 경제 수준 2(1=차상위계층, 0=사각지대/매우 못 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잘 산다/보통수준), 가정 경제 수준 3(1=사각지대, 0=잘 산다/매우 못 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차상위계층/보통수준), 가정 경제 수준 4(1=보통수준, 0=매우 못 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차상위계층/잘 산다/사각지대)라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도움 정도 변수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도움 척도는 모두 역변환하였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서비스 도움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하며, Cronbach's α 는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Versio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한 빈도와 백분율을 파악하였고, 주요 변수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넷째,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에 기록되어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Section	n	%
Gender	girl	209	49.3
	boy	215	50.7
Using computer	use	272	64.2
	don't use	152	35.8
Grade	very satisfied	65	15.3
	satisfied	229	54.0
	not satisfied	130	30.7
Absence of guardians after school	every day	271	63.9
	for 1 or 2 days	98	23.1
	for more than 3 days	55	13.0
Economic level	very poor	61	14.4
	the second-highest class	76	17.9
	blind spot	69	16.3
	ordinary	187	44.1
	rich	31	7.3

아동의 성별은 '여학생' 209명(49.3%)과 '남학생' 215명(50.7%)이고 컴퓨터 사용 여부는 '사용하지 않는다' 152명(35.8%), '사용한다' 272명(64.2%)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성적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 229명(54.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130명(30.7%), '매우 만족한다'는 65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보호자 부재는 '매일 집에 계심' 271명(63.9%)으로 절반을 넘고 '1-2일 정도' 98명(23.1%), '3일 이상' 55명(13.0%) 이상' 55명(13.0%) 순으로 보여준다.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스스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보통수준' 187명(44.1%)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76명(17.9%), '사각지

대' 69명(16.3%), '매우 못 산다' 61명(14.4%), '잘 산다' 31명(7.3%)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고, 독립변수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 변수의 평균값은 .316(sd=.243)이고 자아존중감 변수의 평균값은 3.144(sd=.525)이며 또래관계 변수의 평균값은 3.216(sd=.576)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대한 평균값은 3.180(sd=.475)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주요 변수의 왜도, 첨도의 절대 값은 3과 10보다 작게 나타나 정규성을 이루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

Variable	Mean	S.D	Skew	Kurt
Deficient	.316	.243	.559	-.346
Self-Esteem	3.144	.525	.023	-.482
Peer Relationships	3.216	.576	-.405	.303
School Life Adaptation	3.180	.475	.0406	-.591

3.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상관행렬은 Table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변수는 결핍 변수($r=-.243, p<.01$), 자아존중감 변수($r=.474, p<.01$), 또래관계 ($r=.542, p<.01$) 변수와 정(+)적인 상관관계이다. 또래관계는 결핍 변수($r=-.329, p<.01$)와 부(-)적 상관관계, 자아존중감($r=.39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①	②	③	④
①	1			
②	-.132**	1		
③	-.329**	.398**	1	
④	-.243**	.474**	.542**	1

주) **p<.01 ①Deficient ②Self-Esteem ③Peer Relationships
④School Life Adaptation

3.4 매개효과 검증

3.4.1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동의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 변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 & Kenny

(1986)의 매개효과 3단계 분석방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확인한 결과는 Table 4에 기술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단계에서 결핍변수($\beta = -.129, t = -2.75, p < .01$)는 자아존중감 변수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된다. 통제변인인 서비스 도움 정도($\beta = .282, t = 6.109, p < .001$)는 자아존중감 변수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의 설명력은 13.4%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아동의 결핍 변수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니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beta = -.224, t = -4.934, p < .001$)는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으며, 통제변수인 서비스 도움 정도 변인($\beta = .341, t = 7.623, p < .001$)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의 설명력은 18.7%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아동의 결핍과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함께 대입하여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beta = -.174, t = -4.143, p < .001$)는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보다 줄었으며,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변수($\beta = .384, t = 8.774, p < .001$)는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인인 서비스 도움 정도($\beta = .233, t = 5.418, p < .001$)는 확률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3단계 모형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1.5%로 나타났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에서 1단계 분석결과인 독립변수인 결핍이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하였고, 2단계 검증결과에서 독립변수인 결핍변수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이 있어 유의하였고, 3단계 검증결과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독립변수인 결핍변수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값이 1단계보다 낮아졌다. 즉,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변수는 결핍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한다.

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Deficient → Self-Esteem			Deficient → School Life Adaptation			Self-Esteem → School Life Adaptation		
	B	β	t	B	β	t	B	β	t
gender	.116	.110	2.397*	-.028	-.030	-.672	-.069	-.072	-1.754
grade 1	-.067	-.046	-.886	.021	.016	.313	.044	.033	.722
grade 2	-.031	-.029	-.560	-.004	-.005	-.089	.006	.007	.145
level 1	-.139	-.093	-1.238	.033	.024	.333	.081	.060	.895
level 2	-.102	-.075	-.951	-.047	-.038	-.505	-.012	-.010	-1.139
level 3	.023	.016	.211	.028	.022	.298	.020	.016	.234
level 4	-.134	-.127	-1.374	-.076	-.080	-.888	-.029	-.031	-.372
service	.247	.282	6.109***	.270	.341	7.623***	.184	.233	5.418***
Deficient	-.364	-.129	-2.752**	-.572	-.224	-4.934***	-.445	-.174	-4.143***
Self-Esteem							.348	.384	8.774***
F	7.098***			10.585***			18.979***		
R ²	.134			.187			.315		
Adjust R ²	.115			.170			.299		
Durbin-Watson	1.918			1.793			1.819		

*p<.05, **p<.01, ***p<.001

3.4.2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아동의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방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확인한 결과는 Table 5에 기술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매개변수인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매개변수인 또래관계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단계에서 결핍변수($\beta = -.313, t = -6.787, p < .01$)는 또래관계 변수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된다. 통제변인인 서비스 도움 정도($\beta = .207, t = 4.542, p < .001$)는 또래관계 변수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개변인인 또래관계에 대한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의 설명력은 16.2%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아동의 결핍 변수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니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beta = -.224, t = -4.934, p < .001$)는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으며, 통제변수인 서비스 도움 정도 변인(β

$= .341, t = 7.632, p < .001$)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의 설명력은 18.7%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아동의 결핍과 매개변인인 또래관계 변수를 함께 대입하여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beta = -.1081, t = -1.917, p > .05$)는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개변수인 또래관계 변수($\beta = .455, t = 10.592, p < .001$)는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인인 서비스 도움 정도($\beta = .247, t = 6.071, p < .001$)는 확률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3단계 모형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6.1%로 나타났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에서 1단계 분석결과인 독립변수인 결핍이 종속변수인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하였고, 2단계 검증결과에서 독립변수인 결핍변수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이 있어 유의하였고, 3단계 검증결과에서 매개변수인 또래관계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독립변수인 결핍변수는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매개변수인 또래관계 변수는 결핍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Deficient → Peer Relationships			Deficient → School Life Adaptation			Peer Relationships → School Life Adaptation		
	B	β	t	B	β	t	B	β	t
gender	-.057	-.049	-1.090	-.028	-.030	-.672	-.007	-.007	-.189
grade 1	-.015	-.009	-.180	.021	.016	.313	.026	.020	.446
grade 2	-.036	-.031	-.599	-.004	-.005	-.089	.009	.010	.212
level 1	-.022	-.013	-.182	.033	.024	.333	.041	.030	.470
level 2	-.146	-.097	-1.261	-.047	-.038	-.505	.007	.006	.088
level 3	.048	.031	.410	.028	.022	.298	.010	.008	.122
level 4	-.082	-.071	-.777	-.076	-.080	-.888	-.045	-.047	-.595
service	.198	.207	4.542***	.270	.341	7.623***	.195	.247	6.071***
Deficient	-.968	-.313	-6.787***	-.572	-.224	-4.934***	-.208	-.081	-1.917
Peer Relationships							.376	.455	10.592***
F	8.847***			10.585***			23.311***		
R ²	.162			.187			.361		
Adjust R ²	.143			.170			.346		
Durbin-Watson	2.022			1.793			1.833		

*p<.05, **p<.01, ***p<.001

3.4.3 Sobel test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변수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변수와 또래관계 변수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를 Table 6에 기록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변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면 Sobel test statistic=-2.800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p=.003) 미만에서 확률적으로 유의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결핍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변수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 변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면 Sobel test statistic=-5.865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01 미만(p=.000)에서 또래관계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Table 6.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

Path	Sobel test Statistic	p
Deficient→ Self-Esteem→ School Life Adaptation	-2.800	**
Deficient→ Peer Relationships→ School Life Adaptation	-5.865	***

*p<.05, **p<.01, ***p<.001

4. 결론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 변수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각각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인 2017년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했고, 조사 당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424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주요 결과를 논하면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결핍을 많이 경험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핍에 노출된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이 낮고[23], 아동이 지각하는 결핍이 학교생활적응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고한[24]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결핍수준을 최소화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

인 성인으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결핍가정 아동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겨내고 교육에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이 갖는다고 발표한 선행연구[25,26],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많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8] 등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결핍될수록 자아존중감을 낮아짐으로 인해 아동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아동의 결핍 변수가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아동이 결핍된 가정환경에 노출되어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있어 잘 적응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심리정서적 요인이고,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할수록 학교생활의 적응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긍정심리 높이기, 칭찬하기, 자신의 장점 찾기, 리더십 교육,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과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또래관계는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28,29], 빈곤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밝힌 선행연구[30,31]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결핍의 부(-)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결핍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기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지역아

동센터는 학교 연장선의 장으로서 아동의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임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또래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실천현장에 바로 투입될 상담 및 프로그램 서비스가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여러 방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활동, 교육활동, 또래상담자 역할, 동아리활동 및 나 전달법 등의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중 아동의 권리와 성장 영역의 인성 및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덧붙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경제적 수준은 대다수 아동이 보통수준 이하라고 응답하고 '잘 산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겨우 7.3% 밖에 나타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결핍상태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사회적 소외계층 아동이 폭넓은 복지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도움 정도 변수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같이 고려할 때, 가정의 경제적 결핍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비취약계층 아동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프라 형성 및 프로그램의 발전과 개선이 아동복지 현장의 주요한 과제이다. 이후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 아동의 보호와 지원 기능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아동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문화여가교육·진로·체육 등의 자원과 기회를 다양하게 얻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일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즉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결핍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2차 자료 사용으로 결핍의 측정에 있어 여러 차원의 요인을 다각적인 방향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아동의 다양한 방면에 있어 결핍을 연구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횡단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포함한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결핍은 아동이 성장과 발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동태적·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로 변화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 S. Kim & B. I. Rho.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Servic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at Community Child Cente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8), 577-586. DOI : 10.35873/ajmahs.2019.9.8.051
- [2] S. H. Kim, H. W. Ku, S. J. Baek & I. J. Chung. (2015). Effects of Poverty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umulative Risk Factor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 31, 225-251. UCI : G704-SER000009000.2015.31.010
- [3] S. H. Oh. (2007). The Social Exclusion of Poor Youth and Youth Welfare Policy Direct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3(1), 73-91.
- [4] R. Hyouk. (2009).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ce in Povert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6(3), 23-43. UCI : G704-002141.2009.6.3.006
- [5] S. H. Noh. (2005).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s between Major Factors on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9, 295-330.
- [6]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 of the Child. (2015). <https://www.icareinfo.go.kr/main.do>
- [7] M. H. Jeung, S. W. Hong & S. K. Yoo. (2016). Path Analysis on Impacts of Service Usefulness of Community Children-Center on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in Poverty - Focusing on Examin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Welfare Studies*, 59, 99-127. DOI : 10.15300/jcw.2016.59.4.99

- [8] I. H. Ku, H. S. Park, I. J. Chung & K. H. Kim. (2009). A Pane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61, 57-79.
- [9] Y. L. Cho & H. A. Kang. (2011). The Effects of Child Poverty on the School Adjustment Through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5(3), 369-390.
- [10] H. S. Jang & K. H. Kim. (2014).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s Development -Role of Cumulative Risk Factors-.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7), 185-216.
- [11] S. H. Park & K. H. Kim. (2019).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School Adjustment for the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6), 1063-1078. DOI : 10.22143/HSS21.10.6.78
- [12] N. Branden. (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Nash Publishing.
- [13] Y. E. Kim & M. R. Park. (2007). Research on the Self-Respect Awareness of Children in Regional Children's Cente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4(3), 61-90.
- [14] J. K. Eo & M. J. Chung. (1999). Variables Influencing Children's Self - Esteem in Low Income Familie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2), 21-40.
- [15] E. K. Bae. (2011). The Effect of Empathic Ability on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3(1), 85-100
- [16] W. K. Lee, M. J. Kim & K. B. Yun. (2018). The Effects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Community Child Center Teachers on School Adjustment of Low-Income Adolescents Attending Community Child Centers: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3(4), 633-662. UCI: I410-ECN-0102-2019-300-001147482
- [17] Y. H. Kim & O. R. Kang. (2019). A Study on the Factors of Person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Child Center Affecting the Happiness of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enter.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30(1), 191-204. UCI: I410-ECN-0102-2019-300-001175119
- [18] J. U. Kim, H. L. Jeong, H. J. Park & S. H. Yi.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Problem Solv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a Korean Child Center on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8(5), 19-32. DOI : 10.5723/kjcs.2017.38.5.19
- [19]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12). Measuring Child Poverty: New League Tables of Child Poverty in the World's Rich Countries.
- [20] Behavio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Korea University. (2000). *Psychological Scale*, Handbook I. Seoul : Hakjisa.
- [20]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1] G. C. Armsden & M. T. Greeberg.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22] M. K. Hwang.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Peer Attachment of Multi-Culture Children and Social Anxie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23] H. J. Kim. (2011). Identifying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Adjustment : A Comparative Study of Poor and Non-Poor Childre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0), 1-22. UCI : I410-ECN-0102-2018-300-003918325
- [24] S. M. Bang & K. K. Kim. (2017).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among Korean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7(2), 69-99. DOI : 10.32465/ksocio.2017.27.2.003
- [25] B. K. Park.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6(3), 505-522.
- [26] K. E. Lee & J. R. Lee. (2008).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Self-Esteem : Mediation Roles Parenting Behavior and Domestic Violence.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2(3), 1-15.
- [27] S. K. Lim & H. S. Lee. (2007).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3), 169-183.
- [28] S. J. Park & J. I. Kim. (20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nd Their Predictors. *Journal of Youth Welfare*, 17(3), 263-288.

UCI : I410-ECN-0102-2016-330-000378914

- [29] K. H. Kim. (2014). The Effect of Childhood Economic Deprivation on Social Development.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42), 7-43.
- [30] S. Hjalmarsson & C. Mood. (2015). Do Poorer Youth have Fewer Friends? The Cole of Household and Child Economic Resources in Adolescent School-Class Friendship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7, 201-211.
DOI : 10.1016/j.chilyouth.2015.08.013
- [31] S. Hjalmarsson. (2018). Poor Kids? Economic Resources and Adverse Peer Relation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Swedish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1), 88-104. DOI : 10.1007/s10964-017-0747-8

고 백 합(Baek-Hap Ko)

[정회원]



- 2006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학사)
- 2017년 2월 : 나사렛대학교 사회
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21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
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21년 3월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시간강사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다문화 사회
복지 등
- E-Mail : lily2561@naver.com

석 말 숙(Mal-Sook Suk)

[정회원]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
학과(문학사)
- 198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사업학과(문학석사)
- 1998년 12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School
of Social Welfare (M.S.W)

- 200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
박사)
- 2004년 9월~현재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장애, 가족
- E-Mail : swmalsuk@kornu.ac.kr